

국외출장 결과보고서

구 분	내 역									
출장자	소속	경제전략연구본부	성명	김주현	직급	부연구위원				
출장목적 (중복선택 가능)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관련사업 (예산항목)	○ 출장목적 : 1) 제11회 아세안 확대 해양포럼(EAMF, Expanded ASEAN Maritime Forum) 참석 및 발표, 2) 연안경제 발전에 관한 동아시아 정상 워크숍(East Asia Summit Workshop on Developing Coastal Economy) 참석 및 토론 ○ 관련사업 : 없음 - 인도네시아 외교부와 우리나라 외교부에서 예산 지원 * 인도네시아 외교부: 인천-부산 왕복 항공권, 8/1~8/3 숙박 지원 우리나라 외교부: 8/3-8/4 숙박 및 현지 체제비 지원									
출장기간	2023.8.1(화) ~ 2023.8.5.(토), 3박 5일			출장지	인도네시아(발리)					
출장일정	일자	방문지		주요업무*		항공편				
	8.1(화)	부산→인천(17:50)→발리(23:45)		KTX 및 항공 이동		KE629				
	8.2(수)	The Ayana Ballroom (09:00~19:30)		제11회 아세안 확대 해양포럼(EAMF) 참석 및 발표						
	8.3(목)	The Ayana Estaye		EAMF 논의내용 정리 및 EAS 토론 준비						
	8.4(금)	The Ayana Ballroom (09:00~17:00)		연안경제 발전에 관한 동아시아 정상 워크숍(EAS Workshop) 참석 및 토론						
	8.5(토)	발리(11:20)→인천(07:35)→부산(09:40)		항공 이동		KE8634 BX8807				
출장성과	○ 출장목적 달성 정도 - (직접) 제11회 EAMF 발표(8/2) 및 연안경제 발전에 관한 EAS 워크숍 토론(8/4) 완료 - (간접)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각국의 견해와 동아시아 지역의 연안경제 활성화 사례 파악 및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 주요 성과 - 8/2 제11회 EAMF 참석 및 발표를 통해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가 Blue Economy에 관해 가지고 있는 견해를 파악하고, 이 분야의 연구자(베트남 및 호주)와의 교류를 통해 전문가 네트워크 확대 - 동아시아 국가가 연안지역 공동체(어민, 연안 거주민 등)의 삶을 향상시키고 연안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수행중인 제도와 사례를 파악하고 관련 분야 전문가와 교류									
향후계획	○ 출장 성과 공유 계획 - 이번 출장은 우리나라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의 예산이 지원된 건으로 일차적으로 아세안협력과에 제11회 EAMF와 EAS 워크숍에서 논의된 주요 내용을 간략히 정리하여 공유 - 외교부 아세안협력과의 협조를 얻어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및 해양정책과에 EAMF '아젠다 이슈 4' 와 EAS 워크숍 결과보고 내용을 공유할 예정 ○ 정책화 등 활용 계획 - 향후 '블루 이코노미 협력 및 확대를 위한 연구'를 주제로 원내과제(기본, 일반, 수시 등) 수행을 위한 제안서 작업에 이번 출장 결과 활용 - 해양수산부 국제협력총괄과 또는 해양정책과와의 협의를 통해 추후 활용방안 검토									
참고 등 특이사항 (건의사항)	없음									

* 주요업무 수행 결과 별지 작성 후 첨부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①	8.2.(수) 09:00~19:30, 제11회 아세안 확대 해양포럼(EAMF) 참석 및 발표
수행계획	☐ EAMF의 '의제4 : Fostering Blue Economy Cooperation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발표 ☐ 인도네시아 정부는 청색경제협력 및 지역 경제성장 강화에 AOIP의 기여를 극대화하는 방안, 청색경제 이행을 위한 기회 및 도전과제 등을 집중 논의할 예정 * AOIP(ASEAN Outlook on the Indo-Pacific)는 '인도태평양에 대한 아세안의 관점'으로 아세안 차원의 인태전략이며, 역내 협력 원칙으로 포용성, 투명성, 개방성, 규칙기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고, 해양, 지속가능개발, 경제, 디지털을 4대 핵심분야로 선정하였음. - 해당 관점에서 우리나라가 청색경제와 관련해 진행중인 협력사업 현황과 향후 협력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 등에 관해 발표 예정 - (발표 가제목) Blue economy; From Korean Perspective and Implication for Indo-Pacific Maritime Cooperation, 발표자: 김주현 KMI 부연구위원 ☐ EAMF의 기타 의제 논의에 참석하여 동향 파악 - 의제1(Adoption of Agenda)과 의제3(Initiatives for Maritime Stability and Cooperation) 등 해양수산 관련 주요 의제에 관한 중점 논의사항 파악
수행결과	☐ 개회사 - ASEAN에는 세 가지의 진전이 있으며, ①아세안 확대 해양포럼에서 집중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기를 희망, ②ASEAN 정상들이 '아세안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에 동의하고 이를 채택하는 데 동의, ③하나의 포괄적인 문서로 해양협력에 관한 통합된 형태를 취한다는 점임. ☐ 의제3. 해양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 - 3인의 전문가가 각각 해양 안보, 어족자원 관리를 위한 다국가 참여 연구자 중심의 프로젝트, 인도의 안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협력을 위한 관점과 노력을 주제로 발표 - 남중국해에서 추진되고 있는 해양협력과 관련하여 남해중국연구소 소속인 Yan yan 박사는 해양협력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다는 점에서 이를 돌파할 수 있는 하나의 방안으로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협력사례 중 제3자에 의한 프로젝트인 HD CFRA 프로그램을 소개함. - HD CFRA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동 어족자원 분석 프로젝트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과제로 회의와 보고서 작성에 1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학계 및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 ☐ 의제4. 지역경제 성장을 위한 블루 이코노미 촉진 -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블루 이코노미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아세안 지도자들은 2021년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the Blue Economy'를 선언함으로써 아세안에 블루 이코노미의 중요성이 고려되기 시작 - ASEAN 2023의 인도네시아 의장국에서는 'ASEAN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최종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SEAN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생, 바다 및 담수 기반의 천연자원에서부터 창출될 수 있는 가치 창출을 강조하고 있음. 지침 원칙은 가치창출(value creation), 포괄성(inclusivity)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임. - 베트남, 호주, 한국의 전문가 3인은 각각 블루 이코노미의 GDP에 대한 기여와 잠재력, 블루 이코노미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추진 현황 및 블루 이코노미에서의 형평성(equity), 한국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협력 현황과 K-OEI를 주제로 발표함 - 토론에서는 총 10개국이 발언을 하였으며, 호주와 일본이 우리나라와 유사한 분야(IUU, 해양플라스틱 및 해양 쓰레기 등)에서 아세안과 적극적으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음 - 특히 필리핀은 작년에 우리나라와 추진했던 해양회담(Maritime Dialogue)에서 확인한 우선협력 분야를 오늘 재확인하였으며 향후 지속적인 협력이 있기를 바란다고 발언함 * 상세내용은 [별첨1] 참고

주요 업무내용 (계획(), 결과(√))

업무유형	☐ 현지조사(현장, 전문가 회의) ☐ 국제행사 주최 ☐ 국제행사 참가 ☒ 국제회의(정부대표단) 참석 ☐ 세미나, 교육, 훈련 ☐ 기타 ()
업무②	8.4.(금) 09:00~17:00, 연안경제 발전에 관한 동아시아 정상 워크숍(EAS Workshop) 참석 및 토론
수행계획	▣ Panal2의 ‘Adapting Coastal Communities and Livelihoods in Strengthening Coastal Economy’ 파트의 Discussant로 토론 - 연안경제 발전에 관한 동아시아 정상 워크숍은 총 4개의 패널로 운영되며 한국은 2번째 패널인 ‘연안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안 공동체와 삶의 적응방안’에 관한 주제에 관해 논의 · (패널1) 연안경제의 잠재력 이해 · (패널2) 연안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안 공동체와 삶의 적응방안 · (패널3) 지속가능한 연안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패널4) 지속가능한 연안경제를 위한 기후 회복성 - 주요 논의사항 · 연안경제의 발전에 있어 연안 공동체가 직면한 도전과제와 대응(해결 방안) · 연안 공동체의 전통적 삶의 방식 보존과 연안경제의 발전 과정에 참여하기 위한 권한 · 소규모 어업을 연안 관광산업에 통합하는 것의 잠재적 이점과 위험 및 위험 감소 방안 · 지속가능한 연안경제의 발전과정에서 연안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한 지방정부와 민간영역의 협업 및 협력 방안과 타 지역/국가의 모범 사례
수행결과	▣ 개회사 - 몇주 후에 개최될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연안경제의 발전은 오늘 함께 논의하기에 의미있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의 의장국 우선순위와 일치함. <u>블루 이코노미 개발, 미래의 도전에 대한 탄력성 구축, 인도양 및 태평양 지역의 지역기구들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ASEAN은 회원국들 간, 그리고 ASEAN과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것임.</u> ▣ 패널1. 연안경제의 잠재력 이해 - ‘연안/해양 경제 촉진을 위한 환인도양연합(IORA, 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전략’과 관련해 블루 이코노미에 관한 IORA 워킹그룹 창설, IORA 블루카본 허브 구축,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인도양의 해양 폐기물에 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채택,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등이 고려되고 있음. ▣ 패널2. 연안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안 공동체와 삶의 적응방안 - 호주 전문가 Dr. Russell Rechelt은 연안경제 개발에서 연안공동체가 기본적으로 필요로 하는 요소에 대해 설명하고, 블루 자연 자본(Blue Natural Capita)과 ‘자연회계(Accounting for Nature)’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도입 및 활용을 통한 Financing 부문의 해결책을 제시 - 이러한 맥락에서 KMI 김주현 부연구위원은 공동체에 필수적인 서비스 체계 개선과 정주여건 개선 사례를 한국의 사례를 통해 제시 ▣ 패널3. 지속가능한 연안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 - 인도는 연안인프라와 관련해 해안선 서식지와 유형소득을 위한 맹그로브 이니셔티브(MISHTI, Mangrove Initiative for Shoreline Habitats & Tangible Incomes)를 성공사례로 제시 ▣ 패널4. 지속가능한 연안경제를 위한 기후 회복성 - 지속가능한 연안경제를 위한 기후 회복성 측면에서 Mr. Agus Rusly는 주제발표1에서 조기경보시스템, 모니터링, 유역통합관리 등 실질적인 방안을 제안 * 상세내용은 「별첨2」 참고

[별첨1] '제11회 아세안 확대 해양포럼' 주요 논의내용

□ Agenda Issue 3. Initiatives for Maritime Cooperation

I. 개회사(Opening Remark)

* 연사: H.E. Sidharto R.Suryodipuro, Director General for ASEAN Cooperation

- ASEAN에는 세 가지의 진전이 있으며, 첫 번째로 ASEAN이 관련 프로세스의 진행에 동의했다는 것이며, 아세안 확대 해양포럼에서 더 집중적으로 만나고 교류하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임
- 두 번째는 ASEAN 정상들이 '아세안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에 동의하고 이를 채택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는 것임.
 - 해양개발에 관한 여러가지 이슈는 접근 가능하고 지속가능한 세계 경제를 촉진하고 경제 성장과 번영, 즉 새로운 형태의 경제성장에 크게 기여함.
 - 향후 ASEAN과 이 지역의 광대한 해양자원의 성장을 위한 엄청난 잠재력을 개발하는 방법에 중점을 두고 협력을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천연자원(natural resource)뿐만 아니라 더 많은 부가가치 창출에 이르는 형태로 옮겨갈 것임.
- 세 번째로 하나의 포괄적인 문서로 해양협력에 관한 통합된 모든 것을 담고 있다는 점으로 아세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해양 협력이 다양한 측면에서 담겨 있음.
 - 이 자리가 해양 협력에 대한 보다 집중적이고 통합적인 논의를 촉진하고 해양 문제를 파악하며 좋은 행동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람.

II. Agenda item 3 발표내용

1) 발표자1: Dr. Evan A. Laksmana (Senior Fellow for Southeast Asia Military Modernisation, IISS-Asia)

- 태평양 목표(Pacific goal)에 대한 명백한 접근 가능성에 대한 몇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전략적 조정에 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고자 함.
- 첫 번째 이슈는 해사능력(maritime ability)은 서로 다른 요소와 구성 요소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명확히 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평시와 전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또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전략적 만병통치약이나 해사 능력은 없다는 것임.
 - 따라서 첫 번째로 분명한 투명성과 의사소통 강화 메커니즘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두 번째 이슈로 해양 법 집행 기관 간의 네트워크에 관한 논의가 필요함. ASEAN과 파트너간, 특히 ASEAN 회원국 간에 해양 법 집행 기관을 둘러싼 교육, 훈련 및 제도화된 의사소통 플랫폼과 같은 일련의 공동 활동 및 공유 경험이 부족함.
 - 세 번째 이슈로 해군 역량 구축 조치와 해양 신뢰 구축 조치 사이의 조정으로, 지난 수십 년 동안 논의의 초점은 물리적 측면의 해군력에 있었고 최근까지 해양 법 집행 측면과는 분리되어 있었음
- 전쟁이라는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면 아세안 해상 영역에서 세력을 넓히는 존재가 있는 경우 아세안 지역의 수로(water ways)와 영공(air space)이 미래 군사 작전의 일부가 되는 경우 집단적 대응이 명확하게 표현되지 않는 한 지역이나 국가에 심각한 영향이 있을 것

임.

- 지역적 수준, 특히 ASEAN 수준에서 무력 충돌의 잠재적 중립성에 대한 집단적 견해에 관해 논의할 가치가 있으며 더 많은 대화가 필요하며 몇 가지 정책적 고려사항이 있음.
- 첫째, 전략적 수렴을 위한 더 넓은 ASEAN 지역의 마라톤 전망(ASEAN marathon outlook)을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음.
- 집단적 네트워크로 지역 전체의 해양 법 집행 참여와 최소한 해군과 동등한 역량 구축 메커니즘에 더 많은 투자가 필요함.
- 정보 공유 문제는 지난 몇 년 동안 여러 번 논의되었으며, 합동 교육 훈련을 둘러싼 이슈와 관련해 우리가 분쟁 수역 주변에서 이러한 활동을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추가로 논의할 필요가 있음.
- ASEAN과 파트너 국가는 더 강력한 집단적 위기관리 메커니즘이 필요함.

2) 발표자2: Dr. Yan yan (Director of Research Center for Oceans Law and Policy National Institute for South China Sea Studies)

- 공동의 미래를 위한 수산자원 보존에 관한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협력에 관한 여러가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음.
- 해양협력의 프레임워크는 기본적으로 UN해양법협약(UNCLOS), DOC,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 그리고 COC가 있음.
- 남중국해에서의 해양협력은 Chian ASEAN Joint Military Drill과 다자협력과 China-Vietnam Joint patrol in Gulf of Tonkin과 같은 양자가 있으며 Track2로 China-ASEAN Track2 Dialogue, HD CFRA 프로그램 등이 있음.
- 해양협력에는 많은 장애물이 있으며, 현재 중국이 추진 중인 협력사례 중 제3자에 의한 프로젝트인 HD CFRA 프로그램을 소개함.
 - HD CFRA 프로그램은 2018년부터 현재까지 진행중인 공동 어족자원 분석 프로젝트로 중국, 필리핀, 베트남,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등이 참여하고 있는 연구자 주도의 과제로 회의와 보고서 작성에 100명 이상의 전문가와 학계 및 정부 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하였음.
 - 이 프로젝트와 관련해 참치(Tuna)를 분석 어종으로 설정하고 다양한 워크숍과 데이터 공유 등이 이뤄져 왔음.
- 이 프로젝트는 정책입안자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이 프로젝트를 제도화하고 과학적 데이터를 기록하여 많은 지역에 제공하기를 희망함.

3) 발표자3: Dr. Premesha Saha (Fellow at Observer Research Foundation)

- 최근 인도가 훨씬 더 능동적으로 변했으며 인도가 동남아시아에서 수행한 최근 문제를 살펴보면 중재에 대한 공동 성명을 내놓았고 중재에 동의하였음.
- 인도는 이 지역에서 파트너로서 기반을 넓히려고 노력하고 있으며, 관련 이니셔티브 또한 존재함.
- 하나는 인도-태평양 이니셔티브(AOIP)로 안보, 경제, 해양 수산, 해양 자원, 연구개발 등에 걸쳐 광범위한 협력분야가 있음.
- 또한 아시안 해안 경비대 법 집행 포럼에 인도를 초대할 수 있으며, 인도는 인도 해안 경비대 교전 능력 구축과 훈련을 시작할 수 있음.
- 분쟁에 관한 입장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에 관해 훨씬 더 많은 목소리를 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함.

- 남중국해 분쟁이 어떻게 다루어져야 하는지 논의할 때 기본적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익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할 것임.
- 인도가 재난을 다루는 정책과 관련해 소개할 수 있는 정책이 SAR로 특히, 서인도양 지역의 섬 문제에 관한 위협과 재해에 대한 최초의 대응이라고 생각함.
- 그리고 COVID 팬데믹의 위기동안 인도의 대처 등을 통해 인도가 재난에 대해 전수할 수 있는 훌륭한 교훈이 있다고 생각함.
- 이러한 논의가 가능한 또 다른 플랫폼은 IORA(Indian Ocean Rim Association)라고 생각하며, 현재 많은 동남아시아 국가가 IORA의 회원으로 인도네시아, 호주 등이 참여하고 있음.
- 인도·인도네시아가 IORA플랫폼에서 재난 복원력 이니셔티브인 전반적인 재난 위험 이니셔티브를 추진할 수 있다고 생각함.
- 인도는 해양 안보와 해양 협력을 보장하는 데 더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며, 국방장관급 회의 등은 매우 광범위한 문제를 다루기 때문에 향후 해양 문제에 초점을 맞춘 더 많은 서브 회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함.

III. Agenda item 3 토론내용

1) 필리핀

- 아세안 지역에서 우선순위를 정할 필요가 있는 해양 협력을 위한 해양 이니셔티브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추가적인 협력을 위한 분야를 논의할 필요가 있음.
- 거의 20년에 걸쳐 채택한 협정에 이어, 필리핀 대표단은 최근 실질적인 방위기관의 자금 조달을 보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앞으로 다칠 과제에 집중하고 있음.
- 국제사회가 강제력 있는 협정의 종료와 실효성 있는 이행을 준비하는 가운데, 우리 대표단은 해양 헌법에 대한 인식과 이해를 제고하고, 해양과 평화를 위한 모든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법적 틀을 갖춘 국가적 이해관계자들이 앞장서 나가야 함.

2) 싱가포르

- 아세안 지역 국가들은 공통의 관심사를 공유하고 해양과 국제적 문제에 전념하고 있으며, 주제발표 1번의 내용과 필리핀의 토론내용은 국제법과 해양 법질서 영역에 관한 아세안 지역의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음.
- 어제부터 이어진 회의와 워크숍은 평화를 강화하기 위한 협약이 제공하는 중요한 기여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었으며 동시에 이 지역이 아직도 오랜 난제들과 씨름하고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주었음.
- 오늘날 우리가 직면한 몇몇 도전과제를 매우 빠르게 공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지역의 파트너와 우호세력을 참여시키는 것이 필요함.

3) 호주

- 호주는 해양(해사)문제와 관련해 공개(open)되고 안정적이며 투명한 논의와 해결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아세안 지역 국가와의 역량 강화, 해양 환경 및 대기에 관한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 최근의 판결에 따르면, 해양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국가들의 권리에 대한 중재와 항해의 자유를 방해하는 안전하지 않은 강압적인 행위의 증가 현상을 목격하고 있음.

- 우리는 핵심 활동과 추진이 이루어지는 법적 틀을 마련하는 보편적이고 통일적인 성격을 재확인하였으며, 호주는 관심 있는 아시아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관련 이웃국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옵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입니다.
- 우리는 경제협력을 가능하게 하는 환경을 유지하는 한편 문제가 있는 지역 및 국가의 투명성 문제에 전념하고 있고 향상된 방위 능력이 호주를 이 지역의 더 나은 파트너로 만들 수 있기를 기대함.

4) 일본

- 지난 3월 인도에서 기시다 일본 총리가 발표한 바와 같이 일본은 세계적으로 자유를 가치 있게 여기는 국가이며 타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새로운 기반을 위해 싸우고 있고 기본적으로 AOIP를 지지함.
- 또한 일방적인 현상변경에 반대하고 안보 및 이해관계를 위한 노력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공유하고 있음.
- 또한 어업 기관들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 활동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협력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으며 양국간 그리고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지역협력을 확대해나가고 있음.

5) 중국

- 국제사회 전체가 함께 노력하며 서로의 견해와 열망을 존중하는 포괄적인 협력과 지속가능한 안보접촉을 의미하는 주제발표에 관해 감사하다는 의견을 밝힘.
- 개발은 국제사회 전체의 공통된 열망으로 해양과학연구, 해양경제, 교통 등 경제분야에서 선진적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이니셔티브의 이행과 해양자원의 활용 및 해양생물 다양성 보호가 함께 추진되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생각함.
-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은 지속가능한 해양개발을 달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일, 평등, 상호 이익이 되는 협력에 기초한 개발을 위한 지역 인식을 요구하는 세계 해양개발 리더십을 시작했음.
- 우리의 해양협력은 국제적인 해양질서를 바탕으로 하며, 해양 온난화의 위험성을 제기하고, 국제적인 공조를 통해 상호존중의 원칙을 지킴으로써 우리의 노력이 국제사회의 노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굳게 믿음.

6) 미얀마

- 아세안 공동체는 해양협력 분야에서 더 구조화된 협력을 향해 나아가고 있으며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에 대한 안보, 해양경제 발전, 그리고 해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세 가지 중요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특히 이 논의에서 안보적 관점을 살펴보면 해양협력의 정치적 역학이자 미래와도 관련되어 있음. 우리는 법 집행의 투명성과 네트워크, 우리의 미래에 유용한 해상협력의 경제적이고 지속가능한 측면에서 우리가 반영해야 할 분석적 논의와 대화가 지속될 필요가 있으며 앞으로 논의가 확대되길 기대함.
- 이런 종류의 정보들은 해양의 다른 지역에서도 적용될 수 있으며 우리는 평화와 안정 그리고 경제적인 발전을 겪고 있는 많은 활동들을 하고 있음.

7) 뉴질랜드

- 주제발표를 통해 해양문제에 대한 절차를 공유하고, 아세안 지역 주민들과 우리가 살고있는 도시들의 안전과 안정을 보장하기 위한 해양문제에 대한 제안을 확인하였음.
- 아세안 지역포럼에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지역 이해와 협력을 증진할 수 있는 기회를 계속해서 볼 수 있으며, 호주가 해양안보와 관련해 제안한 부분을 우리 모두의 관심사로 삼고 싶고 우리의 조직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 및 강화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길 바람.

8) 한국

- AOIP와 유사한 관점에서 한국 또한 최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을 발표하였으며 해양협력을 주요 협력의 범위로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은 이 지역에서의 해양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다자간 노력을 추진하고 해양 환경 부분의 협력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고자 함.

9) 러시아

- 러시아는 아세안 지역의 조치와 모든 정보에 대해 계속해서 공유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인도양과 태평양 사이의 협력을 발전시키는 것을 기대함.
- 인도-태평양에 관한 아세안의 관점(AOIP)은 다른 인도-태평양 전략과는 다르다는 점을 부인할 수 없음.
- 핵잠수함 프로젝트는 연합훈련 및 국가와 독일의 공군부대 배치를 포함한 NATO 군사부품의 역내 이전 문제가 발생할 때 아시아-태평양의 관련 인프라 또는 NATO 국가들의 전략적 해군평화를 구축하는 것임.
- ASEAN과 중국의 접점을 확정하려는 노력을 지지하는 러시아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
- 러시아는 지역 어업관리의 틀 안에서 수색 및 구조와 관련된 문제에 대한 협력에 높은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있음. 또한 러시아는 원양과 해협의 선박들에 대한 해적 행위와 공격에 대해 우려하고 있으며, 해적 행위에 대해 러시아의 해군력을 행사하는 것을 공유할 준비가 되어 있음.

10) 인도

- 올해 모든 회의가 해양에 대한 첫 한달간의 조정 또는 이 지역의 해양전망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룰 것이라고 생각되며 우리는 비전에 관해 굉장히 많은 공통된 시각을 가지고 있음을 강조하고 싶음.
- ‘인도-태평양 해양 이니셔티브’의 형태로 우리의 이행을 위한 공동 성명을 가졌으며, 우리는 해양협력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괄적이어야 하며, 우리의 법을 포함한 국제법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동의하고 있음.
- 인도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부분은 정보 공유와 공통된 운영과 작동에 관한 그림, 그리고 역량과 역량구축을 위한 상징적인 노력, 운영조정 메커니즘 등이라고 생각함.
- 우리는 아세안을 중심 플랫폼으로 이러한 협력과 활동을 진행하는 것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EAMF에서 아세안의 중심성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하는 것은 효과적이며 EAMF가 좋은 플랫폼이라고 판단함.

11) 미국

- 발표와 토론에서 다뤄진 주제 중 소통의 투명성과 대화, 그리고 양자간 혹은 다자간이든 이슈에 기반을 둔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함. 우리는 모든 당사국들이 최종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있는 2016년 중재재판소 판결을 존중할 것을 촉구하며 확장된 ASEAN 미국포럼에서 매년 이루어지는 대화들을 소중하게 생각함.
- 정책적 대화와 학술적 대화의 결합은 인도-태평양 수역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연결되고, 번영하고, 안전하게 유지되도록 하기 위해 해양 영역에 대한 더 큰 이해와 파트너 간의 조정을 위한 중요한 기회를 제공함.
- 미국은 2016년부터 싱가포르, 호주와 함께 2022년 싱가포르 국립대학과 울릉공대학이 주관하는 해상경계선 획정에 대한 행사에 공동후원해 왔으며, 당시 EAMF 회원국 11개국에서 40명이 참석했음
- 미국, 인도, 일본, 호주는 해상 영역 인식을 위한 인도-태평양 파트너십을 통해 역내 회복력과 해운 기후 대응 능력 및 인도주의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PMDA는 상업적으로 이용가능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파트너에게 보다 정확한 이미지를 제공함으로써 IUU 어업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미국은 동남아시아 해양법 집행 이니셔티브와 같은 프로그램에서 선정된 아세안 국가를 대상으로 강화된 해양법 집행을 계속 지원하고 있음. 동남아시아의 해양 및 항만 보안 강화는 국경을 넘는 확산 활동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함.
 - * 예를 들어, 미국은 태국의 해양 집행 조정 센터 및 해양 부서와 협력하여 화학 사고 발생에 따른 비상 관리 및 대응 계획의 추가 발전을 지원하고, 국경 안보 위협에 대응하여 기관 간 조정을 보장하기 위한 계획 노력 및 생물학적 사고(biological incidents)를 확대하고 있음.
- 우리는 또한 ARF 해양 폐기물 워크숍과 연구를 개최하고 지구의 해양 쓰레기를 제거하는 방법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기를 기대하고 있으며 해양안보에 관한 ARF 중간 회의를 개최하기를 기대함.

□ Agenda Issue 4. Fostering Blue Economy Cooperation for Regional Economic Growth

I. 좌장(Moderator)의 Agenda item 4 세션 소개

* 좌장: Amalia Adininggar Widyasanti (Deputy Minister for Economic Affairs, Ministry of National Development Planning/Bappena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아세안은 경제성장과 경제적 불평등의 도전에 직면했고 대부분의 아세안 국가들은 꽤 오랜 기간동안 중간 소득의 함정에 빠져있었음. 예를 들어,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시아는 30년 이상 중간 소득의 함정에 빠져있고 아세안 5개 회원국은 현재 하위 중간 소득 경제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음. 아세안이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방식으로 아세안 국가들의 경제적 위상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
- 아세안은 아세안 경제성장의 새로운 엔진으로 블루 이코노미의 큰 잠재력을 지니고 있으며, 아세안 지도자들은 2021년 ‘ASEAN Leaders’ Declaration on the Blue Economy’를 선언함으로써 아세안에 블루 이코노미의 중요성이 고려되기 시작했음
- 2023년 ASEAN 의장국인 인도네시아는 ‘ASEAN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를 개발하고 최종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ASEAN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는 보다 포괄적이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수생, 바다 및 담수 기반의 천연자원으로부터 창출될 수 있는 가치 창출을 강조하고 있음. 지침 원칙은 가치창출(value creation), 포괄성(inclusivity) 및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임.
- 또한, 이 프레임워크는 인도-태평양에 관한 ASEAN의 관점에서 논의하는 원칙들, 주요 요소들, 협력 분야들을 통합하고 있음.
- ‘ASEAN Vision 2040’에서 ASEAN, 중국, 미국, 인도는 2040년에 세계 4대 경제권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성장의 진원지로서 ASEAN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블루 이코노미의 번영뿐만 아니라 옹호를 위한 적극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함. 또한 이는 아세안 경제뿐만 아니라 태평양 지역에 있는 더 넓은 지역의 경제적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블루 이코노미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아세안의 영향력을 높이는 지경학적 도구가 될 수 있음.
- 세계 경제는 사실상 포괄성 원칙을 지닌 지속가능한 경제모델이며, 이를 통해 경제가 아세안 경제의 회복력과 지속가능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 블루 이코노미는 주변 파트너들과 협력하여 인도·태평양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한 아세안 중심성을 촉진하는 도구로 신기술을 수용한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서 아세안 지역 간 경제 격차를 줄이고 아세안 지역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을 실천하고 있음.

II. Agenda item 4 발표내용

1) 발표자1: Dr. Pham Duy Thuc (Deputy director, Center for Information and Analysis, East Sea Institute,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 본인은 연구원으로서 세계 경제에 대한 지역 협력에 관한 개인적인 견해를 나누고자 하며 다음의 세 가지 요점에 대해 설명하고자 함,

- 첫 번째로, 블루 이코노미는 지역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고 있으며 두 번째로, 이 지역은 이러한 잠재력을 활용하기 위해 진정한 도전을 하고 있음.
- 그리고 세 번째로, ASEAN 확대 해양포럼이 이제 해양협력 전반과 이 지역 경제의 잠재력을 증진시키기 위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임.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해양산업 기반의 부가가치는 2030년에 3조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며, 동북아 지역과 북미 지역, 동남아시아 및 인도양 사이의 해상무역에서는 놀라운 성장이 있었음. UN 무역개발협의회(UNCTAD)에 따르면 전 세계 교역량의 70퍼센트가 바다를 통해 운송됨.
- 인도-태평양 지역에 존재하는 산호초는 생물다양성의 고향이며, 광물들은 바닷물 자체 또는 해양 퇴적물로부터 생성되며, 아세안 지역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개발과 투자를 위한 주요 목적지로 성장하고 있음.
- 이 지역은 태양열과 바람은 재생가능한 에너지의 주요 원천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번째로 큰 해상 풍력 시장이 될 수 있음.
- 그리고 이 지역의 세 번째 주요 고용원은 관광으로 무역, 에너지, 관광, 생태학적 가치 등에서 블루 이코노미의 잠재력이 매우 크고 많은 잠재력이 있음을 알 수 있음,
- 이 지역의 도전과제를 살펴보면, 이 지역의 국가들은 GDP에서 블루 이코노미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함에도 블루 이코노미를 그들의 경제발전에 있어서 최우선 순위로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음.
- 이 지역의 블루 이코노미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을 강조하고 싶으며 작은 섬은 해양 자원의 지속가능한 사용으로부터 그리고 어업, 양식, 관광 품목을 포함한 지속가능한 관리를 통해 국가발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 발표자2: Dr. Michelle Voyer (Associate Professor, University of Wollongong)

- 호주 울롱공대학의 ‘호주 국립 해양자원 및 안보센터(ANCORS, Australia National Center for Ocean Resources and Security)’는 다양한 관점에서 해양 거버넌스를 살펴보는 학제 간 연구 센터이며, 본인은 지난 7~8년 동안 블루 이코노미를 연구해 왔음.
- ANCORS는 블루 이코노미를 둘러싼 다양한 규모의 국제 거버넌스 메커니즘에서 호주의 토착 파트너들과 함께 지역사회에 기반을 둔 경제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고 있음.
- (블루 이코노미의 거버넌스 틀) 블루 이코노미의 범위는 국가, 지역별로 다양하며 해당 국가와 지역의 사회문화적, 경제적, 환경 및 거버넌스와 목표를 반영함.
- 해양공간으로부터 경제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이러한 전략들을 둘러싸고 공공과 민간 부문 모두로부터 많은 관심이 존재.
-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블루 이코노미 전략을 개발할 때, 그들은 그들 자신의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 속에서 수립함에 따라 많은 수의 지역적, 국제적 협약과 전략이 존재함.
- 이는 지역 전반에 걸쳐 조정된 시스템 접근법을 개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함.
- (지역 및 국가의 거버넌스 접근) 전 세계적으로 ‘블루 이코노미의 국가적 수준 구현을 고려하는 연구’를 진해중에 있으며 세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국가들이 블루 이코노미의 발전에 어떤 입장을 지니고 있는지를 평가하였음.
- 첫 번째로 우리는 블루 이코노미의 제도적 장치인 국가별 블루 이코노미 전략이나 정책, 정치적 지원을 확인하였으며, 한 국가가 지역 협정의 서명국이거나 관련 전략 및 정책과

계획이 있다면 정치적 약속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함.

- 두 번째로 살펴본 기준은 경제 실행의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증거가 있는지에 대한 것으로 GDP 성장에 전적으로 초점을 맞추지 않고 실물 경제의 블루 이코노미 구성 요소와 진정한 관여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목표 및 행동과 연결되었음.
 - 세 번째 기준은 블루 이코노미 실행전략의 증거로 운영 계획, 재정 조달, 전담 부처 또는 부서, 이해관계자 참여 계획 또는 모니터링 평가 프레임워크에서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방식을 식별했음.
 - 이 평가로부터 우리는 블루 이코노미의 실행 또는 개발이 세계 대부분의 지역에서 상당히 낙후되어 있음을 발견.
 - ASEAN 회원국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세 가지 기준에서 개별 국가의 강점과 약점이 다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고 경험을 공유할 수 있다고 판단됨.
- (거버넌스 접근에서의 equity 강조) 서로 다른 지역적 접근법들은 모두 공통된 가치와 목적 그리고 원칙들을 가리키며, 이는 개발에 있어 지역협력에 있어 견고한 기반을 제공함.
- 학계에서는 블루 이코노미에 대해 환경적, 사회적 형평성 차원을 무시하고 경제성장에 주로 초점을 맞춘 도구라고 비판하는 글들이 많이 있음
 - 우리는 해양의 형평성에 관한 모든 사회과학자들과 전문가들과 머리를 맞대고, 형평성의 목적, 행동, 그리고 그러한 행동을 달성하기 위한 경로를 개발하기 위해 국가들이 사용할 수 있는 매우 실용적인 의미에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음.
 - 과정과 결과물이 네 가지 원칙과 상호작용하는 형평성의 두 가지 유형을 확인했으며, 형평성은 과정과 결과물 모두에 초점을 맞추고 네 가지 형평성 원칙과 상호 작용하고 있음.
 - 네 가지 원칙은 공정성을 달성하는 것으로 이것은 형평성이 전략 내에서 비용과 편익의 공정한 분배를 요구한다는 것임.
 - 두 번째 원칙은 해악을 방지하는 것으로 형평은 부당한 해악을 피하고 위험을 경감하고 해악이 발생했을 때 보상해야 한다는 원칙임.
 - 권리 존중은 형평성이 기존 권리자, 특히 원주민과 같은 개인과 집단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며, 마지막으로 번영을 지지하는 것임.
 - 이것이 바로 형평성이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성취하는 세상에 기여하는 것을 포함하는 개념이며, 이 아이디어는 이 네 가지 원칙이 서로 상호작용하는 것임.
 - 본인은 실천가들이 어떻게 이 모델을 계획 과정에서 구현할 수 있는지를 단계별로 보여주는 가이드라인을 개발했음.

3) 발표자3: 김주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블루 이코노미 관점에서의 해양협력
- AOIP의 협력분야 크게 4가지가 있고 이 중 하나가 해양협력으로 광범위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블루 이코노미의 발전을 포함하고 있음. 최근 해양분야에서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환경, 어민, 자원 등의 이슈도 포함하고 있음
 -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이라는 공간과 해양자원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에서 해양의 환경, 인력, 산업 등 모든 부분과 연관되어 있음
 - 블루 이코노미는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쓰이는 용어로 각 국가, 국제기구별로 저마다의 정의와 개념을 가지고 있음.
 - 합의된 정의는 아직 없지만 블루 이코노미는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의 자원 잠재력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경제·사회 체제” 로 이해할 수 있음.

- 따라서 블루 이코노미 관점에서의 해양협력은 경제를 넘어서 해양을 지속가능한 형태로 이용하고 공동체의 현안을 해결해나가는 형태이며, 해양 연안국의 협력이 중요함.

○ 한국의 인도-태평양 전략과 해양협력 현황

- 한국 또한 AOIP와 유사한 관점에서 해양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 하나가 한-아세안 연대 구상(KASI, Korea-ASEAN Solidarity Initiative)임.
- KASI는 8개 중점 추진과제를 추진하고 있으며, 8개 중점과제 중 3번째 ‘한-아세안 포괄 안보 협력 확대’는 해양안보 등 역내 규칙 기반 질서를 증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양 협력 강화 방안을 포함하고 있음.
- 구체적으로 ASEAN멤버 국가와의 해양협력기금을 활용한 해양 분야 사업 추진, 해양협력 채널 확대, 해양플라스틱 오염 저감 사업 등이 주요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음.
- 한국의 해양수산 사무를 관장하는 해양수산부는 2023년을 기준으로 총 30개의 국제개발 협력 사업에 28.7억 원을 투자할 계획임.
- 주요 파트너 국가는 아시아, 태평양도서국 및 아프리카 순으로 국제협력의 방향을 크게 기후변화 위기 대응체계 구축, 스마트 수산양식 성장기반 조성, 소규모 어촌 특화개발, 해양플라스틱 생애주기 관리로 설정하고 해양수산을 통한 해양협력을 브랜드화하고 있음.
- 2023년을 기준으로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와 계획된 사업들은 블루 이코노미를 구성하고 있는 해운업, 수산업, 해양환경, 어촌 등 다양한 분야와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2023년의 협력사업에는 스마트 양식, 친환경 및 디지털라이제이션 등 새로운 기술과 최근 환경문제 등 현안을 고려한 사업이 다수 포함되어 있음.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해양협력 주요 사례

- 대표적인 협력사례로 한국해양대학교의 해양실습선 ‘한나라호’를 베트남의 해기사양성을 위해 쓰일 수 있도록 2020년 9월 베트남에 양여한 ‘Vietnamese Seafarer Training and Capacity Building’이 있음.
- ‘베트남 북부 수산양식산업 생산성 향상 기술협력 사업’은 맹그로브 숲이 발달된 베트남 북부 연안에서 수산자원의 남획과 연안 환경오염으로 치패가 자연적으로 생산되지 않아 양식 종자확보의 어려움과 생산량 급감이 발생하자, 베트남 정부가 2018년 우리나라에 선진 양식기술 전수를 요청함에 따라 시작됨.
- 해양수산부는 2년간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나서, 올해부터 2026년까지 5년간 총 30억 원을 투입해 수산양식 기술협력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음.
- 이 사업이 베트남 북부지역의 양식산업을 활성화하고 지역주민의 소득향상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최근에는 ‘Marine Plastic Waste’에 관한 협력이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고 그중 하나가 Reducing Marine Plastics in East Asian Seas 프로그램임. 동남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해양 플라스틱 발생지역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국은 PEMSEA 및 KOEM과 협력하여 동남아시아 국가의 지속가능한 해양 폐기물 관리 시스템을 지원함.
- 또한 RegLitter 프로젝트는 역량 강화와 국가 차원의 정책 및 제도 개혁을 통해 해양기반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을 목표로 하며, 사업은 총 사업비 7,500만원으로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시행함.

○ 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

- 한국은 지난 5월 2023 해양수산 국제협력 콘퍼런스(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Conference on Oceans and Fisheries)에서 인류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전 세계가 공유하는 “해양”, 위기 극복에 기여할 “첨단기술”, 미래를 선도할 “인재”를 세 축으로 하는 동반성장 전략인 Korea Ocean Economy Initiative를 발표하였음.

- KOAI는 기후위기 대응, 지속가능한 수산업, 해양환경 보전, 인재 양성 등 4대 추진전략에 따른 대한민국의 중점 추진과제와 파트너 국가와의 협력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음.
- 네 가지 전략의 이행을 위해 한국은 Korea Ocean Economy Alliance를 구성할 계획이며, 파트너 국가들, 그리고 국제기구와 함께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MOU를 체결하고, 지역 협력 네트워크도 적극 확대해 나갈 예정임.

III. Agenda item 4 토론내용

1) 캄보디아

- 해양 환경, 특히 세계 기후 변화에 관한 관심이 중요해지고 있으며 그리고 전통적인 부문과 비전통적인 부문을 포함하는 문제를 블루 이코노미에서 포함하고 있으며 강조하고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함.
- 우리는 블루 이코노미 부문에서 지역경제와 연관지어 우리가 탐구하고 얻을 수 있는 많은 새로운 분야가 있다고 생각됨. 이러한 측면에서 블루 이코노미가 새로운 경제적 미래에 대한 협력이 이 지역에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해 준 발표자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2) 호주

-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가 경제 혜택을 실현하는 데 얼마나 근본적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 기후 변화와 생물 다양성 손실의 영향을 둘러싼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지속 가능한 해양 관리’와 관련해 호주가 전세계적으로, 그리고 지역적으로 ASEAN 파트너들과 함께 하는 과제들이 진행되고 있음.
- 호주는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고위 패널의 일원이며, 지속 가능한 블루 이코노미 경제로의 전환을 돕기 위한 해결책을 지지함. 포럼에서 호주는 그룹의 일부로서 호주를 위한 지속 가능한 해양 계획을 수립하고 있음.
- 그 일환으로 국가 관할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지만 지속 가능한 어업과 IUU어업 근절, 해양 플라스틱 오염 감소, 해양 자원 관리 보호(특히, 산호초 보호) 등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음.
- 어업과 IUU어업에 대해 호주는 지속 가능한 어업 관리에 전념하고 있음. 호주는 서부 중앙 태평양 어업 위원회의 회원이며 효과적인 지속 가능한 어업에 대해 많은 일을 하고 있음.
- 우리는 어업 관리의 지역 협력 구축을 위한 어업 감시, 통제 및 감시 능력에 초점을 맞춘 프로그램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자카르타에 기반을 둔 모든 어업의 지역 계획인 동남아시아 지역 어업 리 조직을 지지함.
- 호주는 기후 변화의 영향과 다른 위협들로부터 핵심 암초를 보호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음.
- 호주 지구과학 기관은 아세안 국가의 해양 계획, 해양과 해안 자원의 감시 및 해양 보호를 지원하기 위해 해양의 특징들을 공간 지도화하는 것에 대해 협력하고 있음.
- 호주 녹색과학 연구소는 핵심 암초 감시와 보호에 대한 작업을 하고 있으며 선도적인 기술을 개발 및 보유하고 있음.
- 오늘 해양 플라스틱 오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해양 문제에 대해서도 더 광범위하게 논의하고 아세안과 협력하여 이 문제를 다루는 경험을 공유했음.
- 호주는 인도네시아, 베트남과 협력하고, 호주의 과학 및 산업 연구 조직을 통해 필리핀과

- 초기 작업을 하는 것을 포함하여 동남아시아에 많은 플라스틱 폐기물 허브를 설립했음.
- 해양 생물 다양성에 대한 지역 및 세계적 협력의 중요성에 대한 또 하나의 요점은 블루 이코노미 문제와 연결된 또 하나의 측면으로 필리핀이 UN BBNJ 조약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지지함.
- 또한 유엔이 공해상에 있는 해양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을 채택하는 것을 지지함. 이는 해양 거버넌스를 위한 승리로 보며 해양 거버넌스와 그 조약에 의해 형성된 몇몇 발표들은 세계의 해양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인 틀을 제공할 것임.
- 호주는 ASEAN에서의 논의에 필리핀이 개입하는 것을 지지하며 프로젝트 수행에 관한 모든 것을 파트너들이 참여하는 것을 지지함.

3) 필리핀

- 필리핀은 태평양과 태평양의 많은 이웃이자 동반자인 해양 국가로 대통령이 밝힌 모든 필리핀인의 안정적이고 안전한 미래에 대한 비전을 지지하기 위한 우리의 우선순위는 식량과 에너지 안보, 기후변화 완화와 적응 등을 포함하며 이러한 우선순위는 우리의 해양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음.
- 블루 이코노미 개념에는 많은 측면이 있으며 지속 가능하게 발전하기 위한 많은 도전 과제가 있음. 더 중요한 것들 중 일부는 생물 다양성의 상실과 어족자원의 고갈을 포함하고 있으며 태평양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큰 어류 생산지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함.
- 필리핀은 효과적인 어족 자원 감시와 재고관리를 위해 IUU 활용 기술에 대해 일관되게 그리고 완전한 조치를 취해왔음.
- 필리핀은 해사산업 10개년 발전계획(10 year maritime industry development plan)에 따라 현대 기술을 혁신하고 운영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고 해운, 수산물 폐기물 운송, 조선, 선박관리 및 기타 부수적인 사업에서 모범사례를 적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또 하나의 연결고리는 산업과 환경으로 식량 공급, 어업, 해운 및 관광, 해양 플라스틱 오염과 같은 공중 보건 및 산업은 해결책을 향한 포괄적인 접근이 필요한 다학제적 과제임.
- 공통된 관심사로 건강한 해양은 공유된 목표이며 해양 노동의 예방, 감축 및 관리를 위한 필리핀 국가 행동 계획(The Philippines national plan of action for the prevention, reduc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labor)은 2040년까지 필리핀 해역에서 폐기물 제로를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그리고 이는 플라스틱 및 폐기물에 대한 생산자 책임을 확대 도입하는 법안을 최근 통과 시킴으로써 보완되었음.
- 김주현 부연구위원의 발표에서 필리핀의 협력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플라스틱 오염이 우선순위로 인정받고 있음. 이는 작년 한국과의 해양회담(maritime dialogue)에서 논의했던 우선순위들 중 하나임. 그리고 필리핀은 몇 달 후에 다음 대화를 주최하면서 이 논의를 계속하기를 기대함.
- 미셸 박사가 우리에게 소개한 새로운 경제개발기준을 환영하며 이 기준은, 국가간 거래의 발전을 위한 사회적, 환경적 차원의 목표와 행동, 그리고 실행전략에 관한 것임. 필리핀 상원에는 블루 이코노미에 관한 법안이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은 우리의 새로운 경제 포용을 위한 국가적 틀을 갖추는 일에 관한 것임.

4) 일본

- 일본은 특히 IUU 어업과 싸우기 위한 노력에 중점을 두고 해양 법 집행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들을 지원하는데 협력해왔음.

- 일본은 주로 태평양 지역을 중심으로 방법망과 역량 강화를 지원해오고 있으며 최근 ASEAN-자йка 구상은 2023년까지 3년간 동남아시아 공식 부서 센터를 통해 IUU 어업 대책에 대한 역량 강화 지원을 장기적인 대책으로 추진하고 있음.
- 또한 TSMA라는 불법 어업 방지를 위한 이른바 국가 조치 협정의 회원국 확대와 WTO subsidy 협정의 조기 발효를 지원하는 것도 중요함.
- 플라스틱 폐기물에 사용되는 자금 확보를 노력하고 있으며, 일본은 2020년 해양 폐기물 저감 대책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의 ASEAN 통합 기구에 950만 달러를 출연하였음. 그리고 이 기금을 통해 일본은 플라스틱 관련 사회 행동 계획 추진을 지원하고 있음.

5) 한국

- 아직까지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합의된 정의와 개념이 없고, 블루 이코노미는 해당 국가의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배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협력의 기회와 위기가 공존한다고 판단됨.
- 미셸 박사님께서 소개해준 블루 이코노미의 발전에서의 형평성 문제 또한 고려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되며 새로운 관점을 소개해주고 분석해주셔서 의미 있었음
- 한국은 최근 ‘한-아세안 연대구상(KASI)’을 발표하였으며, ASEAN의 인도-태평양에 대한 관점과 마찬가지로 해양협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더 발전된 원칙과 국가 간의 협력이 앞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함.

6) 미얀마

- 좌장님께서 설명했듯이 아세안은 아세안의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를 통해 지역의 경제를 촉진시킬 것이며, 우리는 블루 이코노미에 관한 분명한 길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의 파트너들이 협력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많이 있다고 생각함.
- 미얀마는 IMO를 비롯한 다양한 국제협약을 준수하고 있으며 정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자가 구성되어 있고 해양의 다양성을 고려한 전략과 절차를 추구하는 국가 연안 자원 종합 관리 정책을 가지고 있음.
- 미얀마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많은 활동을 하고 있으면 해안/해양 관광 측면에서 아름다운 섬들이 다수 있고 연안관광을 홍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미얀마는 해양 개발의 보존 측면 뿐만 아니라 국내 경제 개발 분야에서도 많은 파트너들과 협력할 수 있는 많은 잠재력을 가지고 있음.

7) 베트남

- 블루 이코노미는 아세안에 꽤 오랫동안 논의가 되어왔던 부분으로 출범 이후 여러 아세안 문서에서 언급되고 있으나 확실하게 식별되지는 않고 있음.
- 블루 이코노미는 경제 그 이상의 것으로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에 관한 것임. 이러한 이해를 바탕으로 세계 경제 및 산업에서 우리는 책임과 대응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 해양은 우리 모두가 소중히 여겨야 하는 공동의 자산이자 후손의 생계유지를 위해서도 보존해야 함.
- 다음으로 아세안 지역에서 대화와 협력의 문화를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것이 바로 지난 반세기 동안 총회가 시도해 온 것임. 국제법, 그리고 유엔 협약, 중국과 아세안 간의 협상 과정에 대해 생각해보면, 우리가 문서를 통해 확보한 행동강령은 우리가 의존하고 있는 시스템을 확실히 하기 위한 것임.

8) 뉴질랜드

- 앞서 오전에 논의한 해양 플라스틱, UN BBJN의 시행과 같은 문제와 지역 수산업 경영의 가치를 논의하는 이와 같은 포럼의 중요성에 대한 동료들의 논평을 지지함. 본인은 오늘 우리가 특정 지역의 범위를 넘어서서 블루 이코노미의 정의가 진화하고 있음을 인정한 것에 대해 패널들에게 찬사를 보내고 싶음.
- 블루 이코노미에서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으로 사람들이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특별히 인정하고, 블루 이코노미는 경제가 기여해야 할 사람들과 또한 그를 위해 기여하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환경의 영향도 고려해야 함.
- 그동안 제기된 문제들의 가치와 블루 이코노미의 발전에 있어 아시아·태평양 지역이 세계를 이끌고 있다는 것을 미셸박사가 알려줬으며, 발표자료는 이 지역 국가들이 그들의 진화와 발전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하는데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됨.
- 이 지역에 존재하는 기관들과 매우 유사한 문제들을 다루는 기관이 다수 존재하며 수산청, 남태평양 환경 프로그램, 태평양 지역사회, 그리고 물론 아세안 사무국이 참여하고 있는 태평양 섬 포럼 사무국이 있음. 태평양 자체가 2050년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은 블루 이코노미에 관한 것이 아니라 청색 태평양 대륙(blue Pacific continent)에 대한 전략임.
- AOIP 관점에서 아세안의 관심사가 존재하고 다른 지역기구들과의 협력 가능성을 탐색하고 있으며 이를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함.
- 오늘 세 명의 패널이 서로 다른 관점에서 경험을 제공하였으며 유익한 성찰과 함께 블루 이코노미가 파트너 간의 협력 분야로 간주되고 있다고 생각됨.

9) 중국

- 경제동반자 관계 구축은 아세안 국가에서 중국 지도자들이 도달한 중요한 합의라는 점을 확인하고자 함.
- 이는 아세안 중국 전략적 동반자 관계 비전 2030의 주요 목표 중 하나이기도 하며, 이는 아세안과 중국 간의 관계 30주년을 기념하는 ‘아세안-중국 특별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도 명시되어 있음.
-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은 아시아 국가들과 협력하여 해양 관련 부문에서 기회를 탐색하고 새로운 경제성장의 방안과 수단을 모색할 준비가 되어 있음.

10) 말레이시아

- 어제(8/1) 제13차 총회와 제11차 총회 개최에 대해 축하하며 오늘 훌륭한 발표를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지켜야 할 것과 아세안 회원국들 사이의 관련 협력과 관련하여 우리가 앞으로 나아갈 길을 상기시켜줄 유용한 정보의 원천이며, 직면한 문제와 도전에 대한 전략적 분석을 제공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음.
- 우리는 또한 앞서 오전에 두 번째 세션과 세 번째 세션에서 발표한 발표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싶음. 그들의 발표는 전략적 중요성과 우리 지역 해양 공간의 중요성, 그리고 참여할 파트너들의 관심에 대한 전반적인 개요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함.
- 우리 해양 영역의 중요성과 이를 둘러싼 문제와 역학, 그리고 행동을 향해 노력하려는 우리의 지속적인 노력 측면에서 지역적 임무는 우리가 우리의 영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으며,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줌,

[별첨2] ‘연안경제 발전에 관한 동아시아 정상 워크숍’ 주요 논의내용

1. 개회사

-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은 서로 상이한 관점과 상황에 있음에도 함께 지역현안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고 있으며, 오늘 이 자리는 공동관심사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임.
- 몇 주 후에 제43차 아세안 정상회의 및 관련 정상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며, 연안경제의 발전은 오늘 함께 논의하기에 의미있는 주제로 인도네시아의 의장국 우선순위와 일치함. **블루 이코노미 개발, 미래의 도전에 대한 탄력성 구축, 인도양 및 태평양 지역의 지역기구들과의 협력 등을 포함**하고 있으며, 올해 ASEAN은 회원국들 간, 그리고 ASEAN과 파트너들 간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를 채택**할 것임.
- ASEAN 지역의 동반자인 인도양과 태평양 연안국도 아세안 해양 어젠다의 발전을 연구하고 싶을 것으로 생각되며, 올해 많은 진전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얼마나 더 많은 시너지를 낼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이 관심사라고 생각됨.
- 아세안의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는 우리 해양의 잠재력을 활용하는 동시에, 해양의 생태계를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미래의 도전에 대비하여 복원력을 구축하는 것은 연안경제 발전의 또 다른 중요한 측면으로 **기후 복원력을 위한 인프라, 자연 기반 해법 및 지속가능한 해안 관리 방안**에 대한 투자 등은 삶, 자원 및 중요한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모두 필수적인 요소임.
-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연안경제의 전략적 중요성은 국제무역과 교역의 중요한 통로로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되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적 번영은 안전하고 개방적인 바닷길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 이번 워크숍은 현재의 지정학적 발전 속에서 인도-태평양에 대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이며 협력적인 아세안 전망의 구체적인 구현으로, **오늘 우리의 논의 결과는 자카르타에서 2주 후에 개최될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 이행에 매우 귀중한 기여를 할 것임.** 아세안 관련 정상회의와 청정 해양에너지 전환과 별개로, 지속가능한 인프라와 해상 연계성은 아세안 인도-태평양 포럼의 관심사 중 하나이며, 연안경제에서 장기적인 지속가능성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2. 패널1: 연안경제의 잠재력 이해(Understanding the Potential of Coastal Economy)

1) 발표1. Dr. Ahmad Zafarullah Abdul Jalil, Director, ASEAN Integration Monitoring Directorate, AEC Department, ASEAN Secretariat

- 블루 이코노미의 잠재력(개괄)
 - 해양기반의 사업은 최소 전 세계 GDP의 3.5% 수준으로 2030년에 그 두배인 30조 달러의 가치를 지닐 것으로 전망됨.
 - AECN은 전 세계 주요 해상운송로 2개가 지나가는 지역에 위치해 있으며 해양바이오생명공학(해양바이오)뿐만 아니라 해양재생에너지 부문이 성장하고 있고 전세계 산호초 28%가 서식하고 있음.

○ ASEAN 블루 이코노미 이니셔티브와 파트너십

- ‘아세안경제공동체 청사진 2025(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에서 해양경제와 관련된 요소: 지속가능한 경제 발전, 해상운송, 어업/양식, 관광, 에너지와 광물 자원, 과학기술 및 혁신, 무역촉진 등
- 파트너십 측면에서, 블루 이코노미 관련 위고숍과 포럼을 진행하고, EAS 청정에너지 포럼, AANZFTA(호주, 뉴질랜드 FTA)의 무역과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챕터의 블루 이코노미, 일본 및 한국과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등을 추진중임.

○ ASEAN 블루 이코노미 프레임워크의 발전

- 가치 창출(value creation), 포용성(Inclusivity),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ASEAN의 다양한 비전과 이니셔티브*를 기반으로 함.

* (가치창출과 포용성) ASEAN Economic Community Blueprint 2025, ASEAN Community’s Post-2025 Vision, ASEAN’s Outlook on Indo-Pacific

** (지속가능성) ASEAN Carbon Neutrality Strategy, ASEAN Regional Action Plan for Combating Marine Debris in the ASEAN Member States (2021-2025)

- 이 프레임워크의 초안은 이번달 말에 작업이 끝나고 추후 43회 ASEAN Summit 회의에서 채택될 예정*임.

* ASEAN B.E. Framework 추진과정: (‘ 21.10) ASEAN 정상회의 블루 이코노미 선언→ (‘ 23.3) B.E.에 관한 이해관계자 담화→ (‘ 23.3) 아세안 블루 이코노미 포럼→ (‘ 23.7) 제44차 아세안 경제통합에 관한 고위급 테스크포스 회의(the High-level Task Force on ASEAN Economic Integration)에서의 마무리→ (‘ 23.9) 제43회 아세안 정상회의에서의 채택

2) 발표2. MS. Fegi Nurhabnim Head of the Disaster Mitigation and Climate Change Adaptation Work Team, Ministry of Marine Affairs and Fisheries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인도네시아 맥락에서의 연안경제의 이해와 잠재력

- 인도네시아는 17,504개의 섬을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해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해양국가
- 인도네시아의 어업은 기후변화로 인해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2050년의 어획량이 2010년 대비 20~30%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며 어업 분야의 부진은 인도네시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 해양수산 분야에서의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

- 인도네시아는 ‘Indonesia 2045’라는 국가발전계획을 구성하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의 추진전략 중 하나로 ‘해양경제발전’을 포함.
-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로드맵은 ‘해양자원의 보호→ 어업부문의 압력 감소→ 해양환경의 지속가능성 유지’로 구성되어 있음.

* 해양보호구역(MSP) 확대, 어획량 쿼티제, 해양·연안·내수면 양식의 지속가능한 발전, 연안과 소규모 섬에 관한 감시와 통제, 해양플라스틱 쓰레기 관리의 5개 과제 포함

- 또한 2030~2050년 동안의 해양보호구역(MPA) 관리를 통해 평시와 비교해 31%의 추가의 소득을 얻을 수 있을것으로 기대됨.

○ 경제 성장과 해양 자원의 지속 가능성 사이의 균형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가능한 해양 회계/계정(Ocean Accounting)에 관해 강조

3) 발표3. Mr. Kunaev Vadim, Representative of the Federal Agency for Fisheries in Japan(Russial)

- 연안경제발전의 맥락에서 손상되기 쉬운 해양생태계의 안전을 위한 동아시아 정상국 간의 전략적 협력 가능 분야에 관해 소개
 - 특히, 연안역 통합관리(ICZM, Integrated Coastal Zone Management)를 중심으로 러시아 수용과 발전 과정에 관해 설명
- ICZM 접근법의 주요 특징
 - 초기 단계의 ICZM은 통합 및 다목적성, 전략적이며 미래지향적, 포용적, 내구성 및 적응성, 생태계 기반의 5가지 특성을 지님.
 - ‘해양 구역 관리 계획(MSMP)’에 대한 관점과 내용을 받아들였다는 특성이 있음
- 러시아에서의 ICZM 형성 및 법적 근거
 - 2022년 7월 31일, “러시아연방의 해상독트린 승인에 관한” 러시아연방 제512호 대통령령
* Decree of the President of the Russian Federation No. 512 of July 31, 2022 “On Approval of the Maritime Doctrine of the Russian Federation“
 - 2030년까지 러시아 연방의 해양 활동 발전 전략
*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Maritime Activities of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30
 - 2030년까지의 러시아연방 수산단지 개발전략
* Strategy for the Development of the Fishery Complex of the Russian Federation until 2030
 - 2035년까지 북극 지역에서 러시아 연방의 국가 정책의 기초
* Fundamentals of the State Policy of the Russian Federation in the Arctic area until 2035
- 양식 개발에 관한 러시아의 접근
 - 가치있는 어종에 관한 양식 기반의(Pasture-based) 양식에 관한 접근
 - 치어의 생물학적 관리와 자연 서식지로의 방류
 - 산업용 양식 생산량의 증가 방지
 - 폐기물 감소
 - 양식을 위한 항생제의 산업적 사용 제한
- 러시아의 ICZM 이행 현황
 - (양자) 중국정부와 러시아 정부의 Amur와 Ussuri 수역에서의 생물자원에 관한 보호, 관리, 재생산에 관한 협정, USSR 정부와 일본 간에 1985년에 체결된 어업분야 협력 협정
 - (다자) NPFC, SPRFMO, CCAMLR, NPAFC, PICES 등
- 러시아는 올해 9/27-29에 글로벌 수산 포럼을 개최할 예정

4) 발표4. H.E. Salman Al Farisi, Secretary General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지속가능한 연안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에 관해 설명
- 연안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주요 동인(drivers)
 - 식량안보 관점에서의 조업과 양식, 규제의 틀로서 좋은 거버넌스, 연안 보호와 자원 보존을 위한 해양 건강, 그리고 역량 강화가 필요
- 연안경제와 산업을 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
 - 해양공간계획(MSP), 블루카본 파이프라인, 지속가능한 양식* 등을 추진중
* 해면양식, 다열대성 양식, 곤충 사료 등대체 어류 사료, 양식 기술의 사용
- 연안/해양 경제 촉진을 위한 환인도양연합(IORA, The Indian Ocean Rim Association) 전략
 - 블루 이코노미에 관한 IORA 워킹그룹 창설, IORA 블루카본 허브 구축, IUU 어업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인도양의 해양 폐기물에 관한 전략적 프레임워크 채택, 지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5) 토론

- Mr. Tran Thanh Hai, Deputy Director-General, Institute for Foreign Policy and Strategic Studies, Diplomatic Academy of Vietnam
 - 지속가능한 연안경제와 블루 이코노미에 관해 3가지를 강조하고 싶음. 1) 해양산업과 경제를 뒷받침하는 항만과 해상에서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 2) 지속가능한 파이낸싱이 중요함. 최근 ESG분야에 관한 자금지원과 투자가 중요하게 진행되고 있음. 3) 또한 해양경제의 새로운 분야(new sector)에 대한 탐색과 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베트남에서 해양경제는 SDG를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한 기반이며 크게 수산업, 석유&가스, 해양재생에너지, 해양관광, 해상교통, 환경과 생태계 등 6가지 분야에 초점을 맞추어 해양경제를 촉진시키고 있음
- Mr. Chatoulong Bousisavath, Director-General of ASEAN Department,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the Lao PDR
 - 라오스는 해양에서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으며 내륙 국가임에도 해양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음. 경제성장은 생태계의 보존과 보호 및 생물/비생물자원의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또한 해양은 육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연결성(connectivity)’에 대한 고려도 필요함. 이런 측면에서 라오스는 작년에 중국과 함께 연결성에 관한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인접국가와의 협력을 희망하고 있음. 또한 라오스는 교통을 특히 중요시여기고 있는데 물건의 이동은 결국 교역에서 비용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런측면에서도 교통 측면의 해상과 육상의 연결성이 강화되길 희망하며, 내륙국가 또한 오늘 논의하는 연안경제의 이니셔티브를 통해 함께 혜택을 얻는 방안이 있기를 바람.
- Mr. Kyaw Moe, Deputy Director, Myanmar
 - 연안경제는 연안에 거주하는 공동체의 삶과 성장을 위해 매우 중요한 부분임. 수산업, 관광, 해상교통, 무역, 조선 등 매우 다양한 산업이 연안경제와 연관되어 있으며 우리는 이런 연안경제를 함께 성장시키고 촉진시켜 나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최근 해양 쓰레기, 기후 위기 등 다양한 위협과 도전과제 직면해있음. 따라서 연안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경제의 발전을 이끄는 데 있어 균형을 맞춰나갈 필요가 있음. 러시아 발표자가 언급한 바와 같이 ICZM 등을 통한 통합된 관리가 필요하며 파이낸싱 또한 연안경제 발전에 중요한 부분임. 그리고 공동체의 프로젝트에 관한 참여가 보장되어야 함.

3. 패널2: 연안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안 공동체와 삶의 적응방안 (Adapting Coastal Communities and Livelihoods in Strengthening coastal economy)

1) 발표1. Mr. Andreas Albertino Hutahaeen, Coordinat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Small Islands, Coordinating Ministry for Maritime Affairs and Investment of the Republic of Indonesia

- 인도네시아의 연안경제 강화를 위한 연안 공동체의 적응과 생계를 중심으로 협력방안을 논의
 - 인도네시아는 75%가 해역이고 25%가 육역이며, 2015년 기준 440개의 도시와 행정구역 중

297개가 연안지역에 면해 있는 해양국가임.

- 인도네시아의 블루 이코노미 규모는 연간 1.33조 달러로 양식(15%), 조업(1%), 소규모 섬 자원(9%), 해양관광(4%) 등으로 구성됨.
- 국가 청색 아젠다 행동 파트너십(NBAAP, National Blue Agenda Action Partnership)
 - 인도네시아 정부, UN, 개발관련 파트너들과 테스크포스를 구성
 - 해양건강, 해양식량, 해양혁신, 해양파이낸스 등을 포함
- 1) 인도네시아 직면한 연안재해와 해결방안
 - (문제) 자바의 북쪽 해안에는 해안침식과 해수면 상승이 발생하고 있으며 지질학적으로 해안 저지대의 특성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점토와 모래로 형성되어 있음.
 - (해결책) 보상을 위한 생물권 협약(Bio-Right AgreementforCompensation): 보존 또는 재건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 경제적으로 지속 가능한 활동의 개발을 위한 지역 사회 단체에 대한 소액 신용을 제공하는 프로그램
- 2) 지속가능한 산림어업(silvofishery)
 - 양식과 자연생태계 보존을 위해 맹그로브를 활용한 ‘새우-탄소 양식 (SECURE)’ 프로젝트를 수행
 - 새우 생산의 생산을 유지하는 수준에서 새우를 생산할 수 있는 연못의 크기를 20%까지 축소시키고 나머지 80%는 맹그로브를 복원함으로써 맹그로브의 손실을 막고 수문 시스템과 연못의 수문학적 체계 개선
- 3) 전통적 조업방식 어선(Artisanal fishing boats)의 탈탄소화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
 - 2016년부터 시작된 프로그램으로 수산업 분야의 CO2 배출 감소 및 에너지 효율 개선을 목적으로 추진
 - 액화천연가스(LNG)를 어선의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9,700척이 넘는 어선들이 LNG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음.
 - * 목표: 11개의 인도네시아 수산관리지역(WPP)에서 약 25,000척의 어선이 2024년까지 LNG를 주요 에너지원으로 사용
- 지속가능한 연안경제를 위한 공동 자금조달(Co-financing)을 위한 방안
 - 리스크와 수익에 따라 Debt, Blended financing, impact-only, equity의 4가지 공동 자금조달 방안을 제안

2) 발표2. MS. Aretha Aprilia, Head of Environment Unit, UNDP

- 4가지의 주요 질문에 집중하여 ‘연안경제의 활성화를 위한 연안 공동체와 삶의 적응방안’을 논의
 - 1) 연안 경제 개발에서 지역 사회가 직면한 현재의 과제는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 2) 어떻게 지역사회가 전통적인 생계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안 경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는가?
 - 3) 소규모 어업 공동체를 연안관광 산업에 통합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과 리스크는 무엇이며, 이러한 리스크는 어떻게 완화될 수 있는가?
 - 4) 민간 부문과 지방 정부가 어떻게 협력하여 지속 가능한 해안 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 (질문1) 연안 경제 개발에서 지역 사회가 직면한 현재의 과제와 해결방안
 - (도전과제) 연안 경제에 대한 인식 및 이해 부족, 환경 악화, 어족자원 남획 및 지속 불가

능한 어업 관행

- (해결방안) 환경보호에 대한 투자, 지속가능한 어업 관행을 위한 인프라 개선, 지속가능한 작업 방식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및 보조금 제공
- (질문2) 지역사회가 전통적인 생계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안 경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 (해결방안) 지역사회 및 청소년의 개입과 참여, 교육 및 인식 제고, 전통지식 통합, 마을 (공동체) 소유 기업의 역량 강화
- (질문3) 소규모 어업 공동체를 연안관광 산업에 통합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과 리스크 및 리스크는 완화방안
 - (경제적 이익) 지역사회의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소규모 어업인의 수입증진을 위한 새로운 기회 제공(보트 투어, 어업 용선, 수산물 식당 운영과 같은 활동 등)
 - (사회적 이익) 문화적 보존과 교류의 촉진에 기여, 지역공동체에 교육과 훈련의 기회 제공, 연안지역 사회에 소속된 주민의 기술과 생계 향상에 기여
 - (환경적 이익) 연안 생태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향상에 기여, 또한 지역 사회가 천연자원을 보호하도록 인센티브를 제공

* 2019년 이후 발리의 외국인 관광객은 9.5달러 이상의 수수료를 지불하도록 법에서 명시→ 관광세 수입은 발리 환경과 문화를 보존하는 데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에 사용됨.
- (질문4) 민간 부문과 지방 정부의 지속가능한 연안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 지원방안
 - (해결방안) 규제를 통한 직접적인 개입, 지역 커뮤니티 참여, 비즈니스 모델 개발, 안전한 자금 지원, 이익 공유 메커니즘, 지속 가능한 실천의 보장

3) 발표3. Prof. Dr. Liu Dahai, Chief Expert on Marine Spatial Management and planning, FIO, MNR, China

- 해양공간계획의 현황과 특징
 - 일반적으로 1) 해양이용 행위와 해양환경을 둘러싼 갈등과 2) 상이한 해양이용 행위 간의 갈등이 존재
 - 생태계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해양공간에서의 인간 활동에 대한 공간적 배치와 분석을 수행하는 과정이 해양공간계획(MSP)임.
 - 2018년 8월까지 전세계 70개국에서 140개의 MSP 프로그램을 수행중이며, 2017년 3월에 유네스코 IOC와 유럽위원회는 해양수산위원회는 Marine Spatial Worldwide 과정을 촉진하기 위한 공동 로드맵(MSP Global 2030)을 채택하였음.
- 중국에서의 MSP 발전 과정
 - 중국은 크게 5개의 MSP 관련 시스템이 존재하며 대표적으로 해양기능구역(MFZ, Marine Functioning Zoning), 해양주요기능구역(Marine Major Functioning Zoning), 섬 보호 계획(Island Protection Planning), 해양친환경보호계획(Marine Eco-environment Protection Plan) 등이 존재함.
 - MFZ 관련 개념은 1980년대에 제안되었으며 1단계(5그룹, 4수준), 2단계(10그룹, 2수준), 3단계(8그룹, 2수준)으로 구성되어 현재 1,931개의 기능으로 구분되어 있음.
- 새로운 시대에 대응한 중국의 해양공간계획
 - (목표) 자원 보전과 생태학적 보호에 높은 우선순위를 두고, 육역 통합발전과 조정 및 법 기반의 연안 구역의 관리를 추진
 - 2018년에 국가위원회의 제도적 개혁이 있었으며, 자연자원부를 통해 해양공간과 자원에

관한 사무를 종합적으로 관장하게 되었음.

- 2019년부터 영토공간계획(TSP, Territorial Spatial Plan) 시스템 하에 육역-해역 통합관리를 추진하고 있으며, MFZ 또한 TSP에 통합된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 연안경제 협력을 위한 제안

- 연안역통합관리(ICZM)와 해양공간계획(MSP)에서의 기술적 협력, 과학 연구를 위한 플랫폼 협력, 관련 계획과 지역발전을 위한 협동 프로젝트 추진, 정기적인 인적교류 및 협력

4) 발표4. Dr. Russell Rechelt AO FSTE, Board member of the Australian Climate Change Authority

○ (질문1) 연안 경제 개발에서 지역 사회가 직면한 현재의 과제와 해결방안

- 연안지역 공동체는 기본적으로 건강, 교육, 에너지자원, 문화, 일자리, 교통에 대한 접근성 강화와 보장이 필요
- 의료 서비스 (의사, 의약품, 백신, 전문 의료 서비스, 인터넷, 원격 의료 등), 교육 (기술 개발, 훈련, 과학과 전통 지식)
- 신재생에너지 (조명, 난방, 냉방, 조리, 경공업), 깨끗한 물과 신선한 음식 (지역 농산물 및 공유/거래)
- 문화적 실천의 유지 및 공동체 복지
- 고용과 수입(전통적인 관행과 새로운 형태의 영향이 작은 양식 산업, 영향이 작은 관광에 대한 지역 사회의 참여)
- 지역사회, 시장 및 무역 센터 간 육로 및 해상을 통한 안전한 이동

○ (질문2) 지역사회가 전통적인 생계를 보존하면서 지속가능한 해안 경제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

- 지속 가능한 해양 경제를 위한 고위급 패널의 접근 방식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 참고: <https://oceanpanel.org/about-ocean-panel/> 의 ‘인도네시아, 일본, 피지, 미국, 호주’
- 소규모 공동체 대상의 혜택에 대한 포괄적 계획: 원칙을 기반으로 소득과 복지를 개선하기 위한 선택 사항을 논의하는 데 지역 공동체를 참여시킴.
- 공평한 변형: 지역 프로젝트를 위한 지속 가능하고 저렴한 금융 포함
- 지속 가능한 생산(어업/양식, 관광 등)
- 건강한 해양 및 해안 환경(서식지 파괴 및 오염 감소, 수질 개선 및 블루카본이 존재하는 서식지 복구)

○ (질문3) 소규모 어업 공동체를 연안관광 산업에 통합할 때 얻을 수 있는 잠재적인 이익과 리스크 및 리스크는 완화방안

- (잠재이익) 소규모 어업은 블루카본 복원과 관광, 해안 복원 및 소규모 새우 생산과 결합함으로써 이익 생산할 수 있음.
- 지역 환경, 지역 관광 산업 및 각 관광객이 ‘협력’을 경험하는 재생 관광의 개념 도입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음.
- (잠재위험) 환경이나 지역사회에 피해가 없도록 관광객 수의 관리를 위한 마을단위 협력 필요, 파괴적이거나 과도한 조업활동에 대한 압박을 방지할 필요, 최소한 부분적으로 지역사회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필요

○ (질문4) 민간 부문과 지방 정부의 지속가능한 연안경제 발전을 위한 지역 사회 지원방안

- 블루 자연 자본(Blue Natural Capita)과 ‘자연회계(Accounting for Nature)’ 를 위한 혁신적인 금융 도입 및 활용
- 인도네시아 및 필리핀 프로젝트 등 ASEAN 지역에서 현재 혁신적인 금융이 개발되고 있

음.

- * 예를 들어, Blue Carbon Accelerator Fund는 '준비 지원', '실행' 및 '프로젝트 지원'에 활용
- (신규 후원대상 및 기회) 세계은행의 ProBlue, International Blue Carbon Partnership, 호주와 IUCN의 Blue Carbon Accelerator Fund, Ocean Risk and Resilience Action Alliance 등
- * PProBlue는 호주, 캐나다, 덴마크, 유럽연합 집행위원회, 프랑스, 독일,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 및 미국에 의해 지원되는 프로그램
- (기존 다자간 기금) Green Climate Fund, 아시아개발은행(ADB)

5) 토론

- 김주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경제전략연구본부 부연구위원
 - '대외환경 변화에 따른 연안경제를 위한 강화방안'에 관한 질문을 중심으로 한국의 관련 정책 및 노력에 관한 몇가지 경험을 공유함. 이러한 경험은 Russell 박사가 언급한 지역공동체를 위한 필수 요소들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 한국 정부는 연안, 섬, 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연안지역 정주여건의 개선'을 중심으로 소외된 섬의 교통편의 증진과 생활필수 물류를 지원하고 있음. 또한 어촌의 저소득 주민을 위한 소득 안전망을 구축하고 관련 보조금을 지급할 계획이며, 연금과 의료보장 등의 측면에서 실질적인 개선을 추진하고 있음.
- Mr. Bunthorn Sok, Deputy Director General for International Trade of the Ministry of Commerce, Cambodia
 - 지속가능한 연안경제와 관련해서 캄보디아는 수산업과 해운업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 캄보디아 정부는 2022년에 수도와 각 지방도시, 특히 연안도시와의 연결성을 강화하고 교통의 편의성을 증진시켜 연안관광을 활성화하기 노력을 시작했음.
- Mr. Lourenco dos Reis Amaral, National Director for Inspection of Fisheries and Aquatic Resources, Timor Leste
 - 동티모르 역시 소규모 섬의 어민들이 중요한 연안경제의 공동체이자 이해관계자이기 때문에 이들에 대한 정책과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수행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연안 공동체의 교육과 정보 습득체계 개선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4. 패널3: 지속가능한 연안 발전을 위한 인프라 강화(Enhancing Infrastructure for Sustainable Coastal Development)

1) 발표1. Mr. Venkatachalam Anbumozhi, Ph.D, Director Research Strategy and Innovations, ERIA

- 경제통합과 성장을 위한 EAS 모델
 - ERIA(2022)는 경제통합과 성장을 위해 '수출 특화(Export specialisation), 기술 집약(Agglomeration skills), 공간 및 사회적 효과(spatial and social effects)'의 3가지를 중심으로 자원이용과 물질 소비의 마찰과 규모의 경제 및 경제 통합 부문의 성장, 그리고 교역과 투자 및 기술 부문의 활동이 상호작용하는 모델을 소개
- 전통적 연안 인프라 개발과 연관된 마찰 및 리스크
 - (물리) 물리적 자산과 기후위기 등의 손상과 관련된 리스크
 - (운영) 공급사슬망의 혼란 등 활동의 지속에 영향을 미치는 리스크

- (시장) 수요 및 공급곡선의 이동을 포함한 특정 산업이나 발전 과정에 발생하는 시장의 리스크
- (규제) 세금이나 보조금 등 규제 환경에서의 변화에 따른 리스크
- (평판) 대중의 인식 등의 변화에서 발생하는 리스크
- 지속가능한 연안 인프라개발은 경제적 가치 최대화와 환경적 리스크 최소화가 필요
 - 이를 위해 기술과 금융 및 정책의 적절한 개입이 요구됨.
- 지속가능한 연안 인프라에 대한 현재 투자수준은 규모와 속도면에서 부족
 - 아시아개발은행은 해양관련 인프라 투자규모가 5년간 50억 달러, 세계은행은 3년간 290만 달러, Blue Bond는 10년간 150만 달러
- 지속가능한 연안 인프라 발전의 장애물
 - (지역 프레임워크의 부재) 지속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관리하고 투자를 안내하는 분류 체계 등
 - (규모와 이해의 차이) 블루 이코노미의 기회에 대한 시장가치와 해양 인프라 요구에 관한 불확실한 경계
 - (취약한 금융지원 타당성) 적절한 리스크-수익의 비율에 대한 부족
 - (왜곡된 시장) 부정적인 외부 효과의 존재, 비용과 편익의 불균등한 분배
 - (높은 재정적 위험) 지속 가능한 연안인프라가 지닌 높은 리스크는 신규 규제의 도입을 가능하게 함
- ⇒ 새로운 **민관협력 파트너십(PPP)**의 필요
- 지속가능한 연안 인프라 발전을 위한 조정과 기회
 - 지속 가능한 연안 인프라 개발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치하기 위한 효과적인 정책 및 규제 환경 구축
 - 지식 및 데이터 인적 역량 강화
 - 연안지역의 자연기반 해법(NBS)으로의 공공 투자 전환과 증가
 - 블루 이코노미에 대한 민간 투자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식과 PPP 활성화

2) 발표2. Dr. Ragavan, Scientist B, Sustainable Coastal Management Division & CRZ Division, Ministry of Environment, Forest and Climate Change, Government of India

- 연안지역의 인프라 개발을 위해 필요한 사항
 - 기후 변화는 세계적인 현상이지만, 기후 변화의 영향은 지역별로 매우 상이함.
 - 지속 가능한 연안의 개발을 위한 인프라 시설의 복원력을 보장하기 위해 기후변화 영향 및 조치에 대한 해당 지역 및 현장에 대한 이해가 고려되어야 함.
 - 또한 현장별 데이터/정보를 기반으로 한 정책 기반의 연구가 수행되어야 함.
- 인도의 연안지역의 인프라 시설 복원력 보장을 위한 노력
 - 해수면 상승과 관련된 위험선 매핑, CRZ 공지 2019, 모든 연안의 주 및 연방 영토에 대한 지침과 함께 해안 보호를 위한 국가전략 수립, NCCR의 해안선 변화 모니터링, '맹그로브와 산호초의 보존과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 계획, 연안 및 해양공간계획 등
- 주요사례: 해안선 서식지와 유형소득을 위한 맹그로브 이니셔티브(MISHTI, Mangrove Initiative for Shoreline Habitats & Tangible Incomes)
 - MISHTI는 인도의 자연 보호를 위한 인도 총리 주관의 비전 프로그램 중 하나로 인도 및

- 기타 국가의 기존 모범 사례를 채택하여 모든 연안 주 및 연방 영토에서 맹그로브의 복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 2023-2024년부터 2027-2028년까지 5년간 9개의 주와 4개의 연방 영토에 걸쳐 약 540km²의 면적을 대상으로 시행
- (예상효과) 인도 연안의 맹그로브 증가 및 기후변화에 대한 인도 맹그로브의 회복성 증진, 연안 인프라시설 개발의 회복력 강화, 블루카본 개선 등

3) 토론

- Ms. Hemalatha Raja Sekaran, Fisheries Officer, Policy and Strategic Planning Division, Department of Fisheries, Malaysia
 - 연안경제는 복잡다단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이슈가 얹혀있는 분야임. 따라서 연안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통합된 관리가 필요하며 이의 일환으로 통합관리 측면에서 MSP와 같은 관련 정책을 발전시키고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음. 또한 오늘 오전 세션에서 발표자분 중 한 분이 ‘Blue Print’에 대해 설명해주셨는데, Blue Print는 통합된 관리 측면에서 연안경제의 발전과 관리를 촉진할 수 있다고 생각함. 말레이시아 또한 통합된 관리 측면에서의 연안경제 발전을 위한 노력을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관련된 전략을 발표하였음.
- H.E. Ambassador Kiya Masahiko, Mission of Japan to ASEAN
 - 크게 3가지에 대해 논의하고자 함. 1) 오늘 개최된 연안경제 발전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 의 중요성, 2) 블루 이코노미의 협력과 AOIP 관점에서 지속가능한 연안 경제에 관한 시사점을 이끌어낸 것, 그리고 3) 함께 문서를 작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결국 실질적인 행동과 노력을 수행하는 것이 중요함.
 - 일본은 해양국가로서 일본 또한 이 지역에서의 인재양성과 훈련 측면에서의 협력과 노력을 지속하는 것을 강조하고 싶음. 일본은 행동의 측면에서 향후 15년간 지속적인 협력을 노력할 것임.
 - AOIP, ASEAN Blue Economy Framework 등이 논의되는 올해 추후 더 많은 회의를 통해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고 행동할 수 있는 기회가 창출되기를 바람.

5. 패널4: 지속가능한 연안경제를 위한 기후 회복성(Climate Resilience for Sustainable Coastal Economy)

1) 발표1. Mr. Agus Rusly, S.Pi., M.Si, Secretary of the Directorate-General of Climate Change Control, Ministry of Environment and Forestry

- 인도네시아 기후변화에 따른 연안지역 영향: 연안지역의 홍수와 침수
 - 자카르타, 세마랑 등의 연안지역은 연간 0.3~0.7cm의 해수면 상승과 연간 3~10cm의 연안침식이 발생
 - Pekalongan 지역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최악의 시나리오에서 중대한 조치가 없을 경우 2035년에 도시의 약 85%가 영구적으로 침수될 것으로 예상됨.
- 산호 백화현상(Coral bleaching) 및 연안 생태계의 악화
 - 미국 해양대기청(NOAA)에 따르면, 기후변화로 기온이 상승하고 풍속의 변화로 오염물질의 이동이 발생하며 햇빛의 과도한 노출과 극한의 저조대에서는 산호의 백화현상이 가속

화됨.

* 산호 백화현상: 해수 온도의 급격한 상승이나 오염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해 산호의 세포조직 내에 살고 있는 황록공생조류(zooxanthellae)가 빠져나가 산호가 하얀색으로 변하는 현상

○ 인도네시아의 적응을 위한 전념(Indonesia's adaptation commitment)

- 인도네시아는 2030년까지 기후변화의 위협과 영향에 탄력적인 지역사회와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하는 'Indonesia adaptation commitment' 추진
- 경제적 회복력, 사회 및 삶의 회복력, 생태계 및 경관 회복력을 얻기 위해 노력
- '생태계 및 경관 회복력' 측면에서는 생태계 보존과 복원, 사회 임업, 통합유역관리, 회복력 도시, 연안지역 보호 등의 프로그램 시행

○ 추진방안

- 모니터링 및 조기경보시스템 강화
- 문제의 원인이 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종합적인 분석 실시
- 상류 및 하류 통합 관리(유역 통합 관리)
- 원수(Raw water) 대체, 지하수 추출 제한
- 맹그로브 생태계 복원

2) 발표2. Dr. Vivi Yulaswati, MSc, Deputy for Maritime Affairs and Natural Resources-Bappenas

○ 인도네시아 기후변에 따른 연안지역 재해 증가와 전망

- 2012년부터 2022년까지 홍수, 산사태, 토네이도, 가뭄 등의 연안재해가 증가
- 과도한 지하수 사용은 도시, 특히 해안 지역의 토지 침하를 일으키고 있으며 자카르타는 1980년 이후 $\pm 3.5m$ 정도 가라 앉았음.
- 약 50cm의 해수면 상승과 자카르타 만의 육지 침하가 합쳐지면서 북자카르타와 베카시의 10m 미만 지역에 사는 백만 명의 사람들이 홍수를 겪고 있음.
- 연안에 발생하는 홍수로 인한 재해에 따른 비용은 약 13.1억 달러로 추정되며, 2080년에는 160배 증가하여 2,09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기후 탄력성 정책' 시행으로 2024년까지 IDR 281.9조의 잠재적 경제적 손실을 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연안재해에 따른 이주와 빈곤의 위협

- 인도네시아 연안지역에는 약 199개의 구(districts)와 도시가 위치하고 있으며, 이 중 40개의 구/도시*는 매우 높은 해안 취약성 지수를 기록

* Aceh Singkil, Cilacap, Denpasar, and Wakatobi 등

- 1,165만 명의 가난한 사람들이 생계와 자산의 손실로 인해 기후 변화에 더 취약함

○ 연안 생태계의 발전을 통한 경제와 복지 개선

- 연안 생태계 개선을 통해 인적 자본, 자연 자본, 생산 자본 간의 선순환을 불러올 수 있음.
- 연안과 해양 생태계를 통해 제공되는 생태계 서비스는 공동체의 소득, 복지, 안정성을 개선시킴으로써 지역사회에 기여

○ 연안경제의 전환 사례: 블루푸드 혁신 로드맵

- (양식) 효과적인 글로벌 및 지역 협력, 계획 및 거버넌스를 통한 양식 개발 및 관리 강화, 혁신적인 기술과 관리를 통한 지속가능하고 탄력적인 양식 시스템의 확장 지원,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양식 기반 생계 보장, 환경영향을 최소화하고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작업방식, 양식 발전의 성장과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영향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 (조업) 효과적인 정책, 거버넌스 구조 및 기관을 통한 어업활동 지원, 자원과 서비스에 대한 공평한 접근을 통해 어업인과 어업 종사자의 생계 향상, 효과적인 어업 관리 시스템통한 생태학적,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해결, 효율적이고 안전하며 수익성이 높은 어선
- (가치사슬) 수익성을 높이고 식량 손실을 줄이는 효율적인 가치 사슬, 투명하고 포괄적이며 성평등한 가치사슬은 지속 가능한 생계를 지원, 수산 및 양식 제품의 더 효과적인 국제시장 접근, 지속가능한 수산 식품의 지속 가능한 소비 증가, 건강하고 안전하며 고품질의 수산식품에 대한 접근성 향상

○ 연안경제에서의 인프라 시설의 기능과 역할

- (연안 보호) 해수면 상승 및 연안침식 증가 최소화
- (홍수 예방) 연안도시에서 발생하는 해일, 홍수가 주택가에 미치는 영향 감소.
- (물 자원) 연안도시 식수공급을 위한 또 다른 선택지로서 역삼투압 시설
- (위생) 적절한 기반시설이 없는 겨우 연안지역 사회는 적절한 위생시설에 대한 접근 불가
- (항만 개발) 인도네시아의 항구는 물류 및 연결성 지원을 위한 중요한 요소
- (조기경보시스템) 연안 및 해양 지역의 조기경보시스템은 지진 또는 쓰나미와 같은 재난에 대한 신호를 연안지역 사회에 사전에 알릴 수 있음

○ 기후 탄력성을 높이기 위한 연안 개발 계획 및 집행

- (지역계획 및 정착지 이전) 해수면이 상승하기 쉬운 연안지역에서 손실 및 피해를 줄이기 위한 이주 정착지 필요
- (자연기반해법(NBS, Nature Based Solution) 통합 접근법) 맹그로브(mangrove)와 같은 해안 생태계의 복원은 기후 변화 영향에 대한 자연 보호뿐만 아니라 생태계 기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
- (연안 방파제) 해수면 상승과 극한 파도의 위협에 대한 복원력을 높이기 위해 해안 기반 시설을 구축

3) 발표3. Ms. Wang Yujuan, Professor, Foreig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China-ASEAN Environmental Cooperation Center, Ministry of Ecology and Environment of People Republic of China

○ 중국 연안지역의 경제·기후 회복력 실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방안과 실천과제에 대해 설명하고 있으며, 중국의 기후변화 정책은 다음과 같이 추진되어 옴.

- (2007) 기후 변화에 대한 중국의 국가 계획
- (2014) 국가기후변화계획 (2014-2020)
- (2020) 제75차 유엔 총회
 - * 중국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 이전에 정점을 찍을 것이며, 2060년까지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
- (2021) 제14차 5개년 계획 및 2035년 비전목표의 개요
 - * 2025년 국내총생산 단위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20년보다 18% 감소할 것
- (2021) 중국의 중세기 중·장기 저온실가스 배출 개발 전략
- (2022) 국가기후변화 적응전략 2035

○ 중국의 연안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 기후 변화는 중국에서 주로 폭풍 해일, 파도 및 적조 재해와 같은 해양 재해를 자주 발생 시킴.
- 2022년 12건의 재난으로 총 2억 4천 154만 7천 위안의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고,

9명이 사망하거나 실종

- 2022년 해양재해로 인한 직접적인 경제적 손실은 10년전 대비 34% 낮고, 해양 자연재해의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감소하고 있으나, 총 경제적 손실은 여전히 상당한 규모임.

○ 연안경제 기후 탄력성 강화 방안

- 연안권 보호 및 복원 강화, 연안권 통합관리 개선
- 연안 공학적 보호 조치에 대한 대안 제공
- 해수면 상승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잠재적인 재해 위험 방지 및 완화
- 기후변화에 관한 인식개선과 홍보 강화 및 저탄소 연안개발 촉진
- 회복력 메커니즘의 계획 및 설계를 강화하고 기관 건물의 적응 관리를 혁신

4) 토론

○ Mr. Marcial C. Amaro, Jr., Assistant Secretary for Policy, Planning and Foreign Assisted and Special Projects and concurrent Director of the Department of Environment and Natural Resources-Biodiversity Management Bureau, The Philippines

- 해수면, 극심한 기후변화 등 필리핀의 연안 또한 다양한 위기에 직면해있으며, 손상되기 쉬운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과 노력이 필요함. 필리핀은 기술기반의 스마트 양식, 친환경 방식의 해양 이용을 통해 적응력을 높이고 연안 공동체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하고 있음. 2023~2028년 동안 추진되는 계획을 통해 해양자원과 해양생태계의 다양성 확보, 이동성 강화, 관련 역량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음.
- 이러한 활동을 통해 극심하게 변화하는 환경에서 단순히 연안 공동체가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번영하고 발전하기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H.E. Ambassador Yohannes A. Abraham, US Mission to ASE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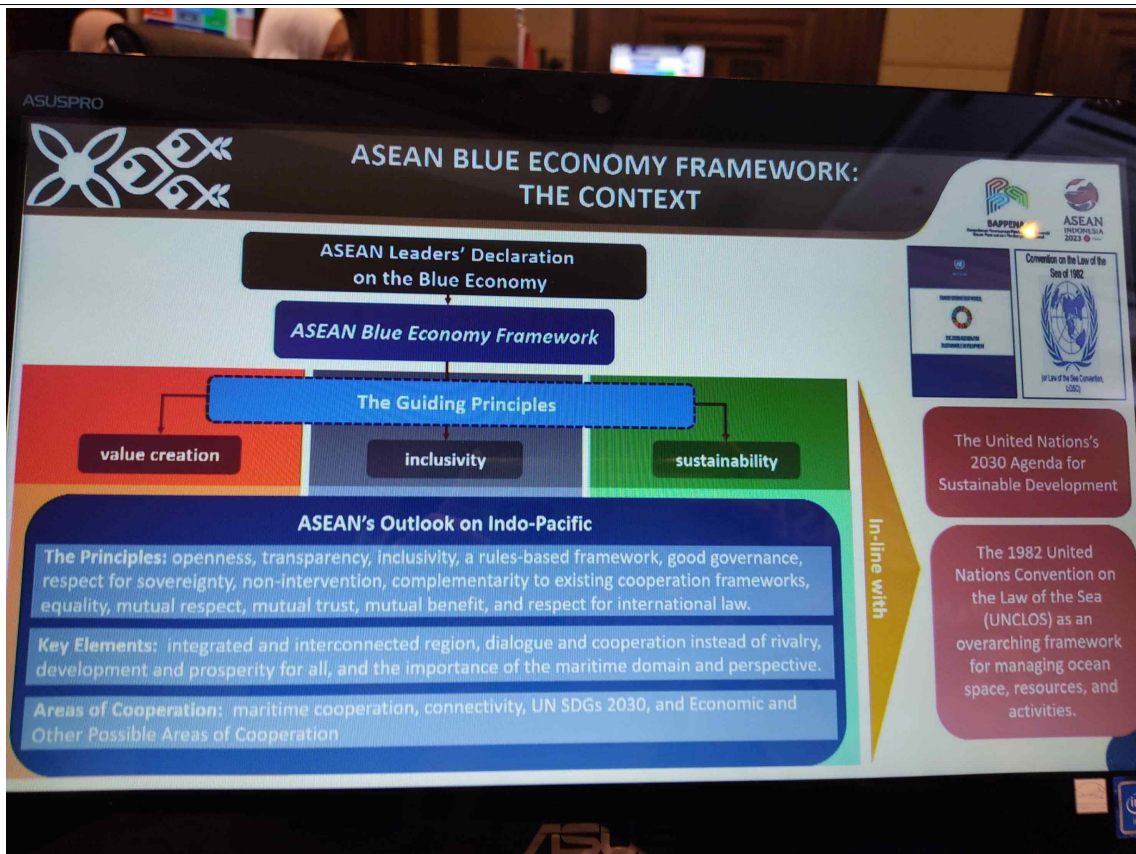
- 최근 미국 또한 해수면 상승, 홍수, 연안 침식 등 기후 위기에 따른 연안재해를 겪고 있으며 이외에도 다양한 해결해야 할 문제에 직면해 있음. 아시아 지역은 기후 위기에 관한 중요한 파트너로서 미국은 연안의 기후위기 문제 대응과 적응 및 회복성을 위한 노력을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음.
- 몇가지 사례를 소개하자면, ASEAN 회원국가의 청정에너지 전환, 기후위기 적응을 위한 위성활용의 데이터 수집과 활용 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은 파트너십을 맺고 관련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별첨3] 제 11회 EAMF 및 EAS 워크숍 사진 자료

제11회 EAMF 현장 사진



ASEAN Blue Economy 프레임워크 설명 자료



EAS 워크숍 현장 사진

